

## 전북연구원 보도자료

아름다운 산하 응비하는  
생명의 삶터, 천년 전북!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 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  
<http://www.jthink.kr>

•문의 : 연구본부장 이강진 선임연구위원  
(063-280-7141)

•담당자: 여성정책연구소 조경옥 선임연구위원  
(063-280-7191)

보도시점 : 2021년 11월 4일(목)부터

### ‘성 평등지수 개편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다’

-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, 제3차 성 평등 추진 전략사업 포럼 주최
- 지역 성평등 지수 개선과 의미, 향상 방안에 대한 정책대응과 시군협력 방안을 재조명

[사진 및 영상자료 : 사진 자료 있음]

-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(소장 이수인)는 4일 오후 2시 ‘성 평등지수 개편 방향과 과제’를 주제로 제3차 성평등 추진 전략사업 포럼을 온라인 비대면 (ZOOM) 방식으로 개최하였다.
-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0여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성평등 지표는 지역 성평등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반영하여 중앙부처에서 전면 개편을 추진 중에 있는 지수 개편 내용에 대한 정보공유와 합리적인 개편 방안 및 향후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.
-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우연(충남여성정책개발원, 선임연구위원)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성평등 지수개편은 ‘성평등 사회의 실현’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중심으로 지표체계를 재구

성하였으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시의성이 높은 지표 및 각 영역별 성평등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신규지표 등을 추가하였다고 평가하였다.

- 발제내용에 대해 토론자들은 전라북도 성 평등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정책대응과 동시에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시군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. 홍성임 의원은 성평등 지수 개선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과제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전 부서 차원에서의 성평등 지수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. 국주영은 의원은 성평등 기본계획 이행 점검과 성평등 이슈를 도정 핵심 목표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.
-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북의 성평등 지수 제고를 위해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도와 시군, 유관기관의 성평등 지수 향상을 위한 합동 점검회의와 더불어 양성평등 교육 확대, 유관기관의 젠더거버넌스 구축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.

